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chool Library Opening to Local Community: Focused on School Libraries in Gang-Nam Gu, Seoul

신 지 연(Ji-Yeon Shin)*

김 유 승(You-Se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초등학교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방 서비스를 실시하였던 강남구 내 초등학교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법제도적 근거, 개방 유형, 개방의 장단점 등을 살피고, 학교도서관 개방 사례로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자와 학부모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지역사회 개방을 위하여 인적, 제도적, 재정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enhanced policies of school library opening services. It analyzed various issues on primary school libraries in Gangnam-gu, Seoul which have provided opening services for the last 10years, from 2001 to 2011, in cooperation with the Gang-Nam Gu Council. In theoretical aspect, this study discussed legal grounds, typ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school library opening policies. Furthermore, it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ed the primary school librarians and users to explore their understanding about school library opening. As a result, it presented alternative strategies of three aspects: human resource, administrative system and finance for improving school library opening services.

키워드: 사서, 사서교사, 초등학교 도서관, 학교도서관 개방, 학교도서관 정책
Librarian, Teacher Librarian, Primary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Opening,
School Library Policy

* 서울 역촌초등학교 사서교사(jsesi79@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2년 2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2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3월 6일

1. 들어가는 글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클러렌스 페리(Clarence Perry)가 근린주구(Neighbourhood Unit) 이론¹⁾을 통해, 주거 단위의 규모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근린생활권의 중심으로써 지역사회 교육을 담당하는 주된 시설이다. 더구나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 등을 비롯한 사회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학교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학교 시설의 개방운영 및 복합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는 운동장, 교실, 체육 시설, 강당,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학교로 확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취학아동 감소로 학생수와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사회 공공시설 설치 및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학교의 여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보·교육·문화·레크리에이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은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핵심 시설로서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실제, 지역사회 학교도서관 개방은 교육과학

기술부 주관의 '방과 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역문화센터 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대구, 부산 등의 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구·강북구·관악구·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산하 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개방 시범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학교 등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박운금 2009).

이상의 사업들은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에서 이웃들을 모으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가는 데 있어 학교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대표적 사례인 강남구 학교도서관을 주목하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서울 강남구청과 관내 초등학교들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개방하였던 초등학교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 사서들·학부모·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1.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도서관 개방에 관한 연구가 있다.

1) 클러렌스 페리가 제안한 주거단지 계획 개념이다.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단지 규모에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일컫는다(이진원 1996).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이용자교육에서부터 사서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그 중 큰 영역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다. 김병주(1997)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정동열·김성진(2002)의 연구, 강남구립 학교전자도서관을 학교-공공 통합형 도서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 모델로 제시한 한운옥·이승원(2003)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후 한운옥·곽철완(2004)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용남(2007)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분석”, 곽철완(2007)의 “통합도서관의 발전과 그 효과” 등의 연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도서관 개방에 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대근·사공복희(2010)의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이·김윤섭(2011)의 “학습기능의 중심축으로서 대학도서관 개방 방안” 등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 나면, 정작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는 국내의 학교도서관 현실을 반영하듯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김종성(2010)의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발전적 원리”와 이병기·송기호(2011)의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종성은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점과 한계로 지역주민 이용률 저조, 담당인력의 고충 증가, 학교도서관 인력 체제의 왜곡, 학교도서관 기능 확립 저해로 파악하면서, 문제의 이면에 지역 개방을 위한 기본 조건 미성숙, 지역 개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의 관행이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지역 개방을 위한 원리를 제안하였다. 한편, 이병기·송기호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의 제한 요소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개방에 필요한 인적자원, 예산, 시설, 자료, 프로그램, 설비에 관한 기본여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원별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해서는 사서교사 배치를 통해 교내 교육정보 서비스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교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법·제도적 근거

모든 도서관은 관중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열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도서관법』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제1조를 통해 이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

생교육법』 제29조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실·도서관·체육관 등의 학교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을 들 수 있다. 학교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설계시 주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이용을 고려한 신축과 증·개축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2003)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기준』(2003)은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정보 자원의 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법률들이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재정과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원 아래 전개되었던 학교도서관 개방의 경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변화에 따라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좌우된 사례도 있다. 본 연구가 중점 사례로 다루는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이 그 대표적인 예다.

2.2 학교도서관 개방의 의의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실”로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 습관과 태도를 길러주고, 독서를 장려하는 교육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선언(School Library Manifesto)』과, 『학교도서관 기준(School Library Guidelines)』은 학교도서관의 사명을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형태의 정보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록 제공하고, 교외 공동체와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학교도서관 이외의 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OECD(2000)의 『학교도서관 정책 보고서』가 명시한 8가지 지침도 학교도서관이 학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산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방이 강조되는 탈학교형, 네트워크형 학교도서관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만을 위한 교육의 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휴게실 기능 및 능동적 학습의 장으로 확충 전환"됨으로써(교육인적자원부 2002, 4),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발전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일부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²⁾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성장 발전하듯이 학교도서관이 지역의 다양한 시설,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서로 가능한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개방되고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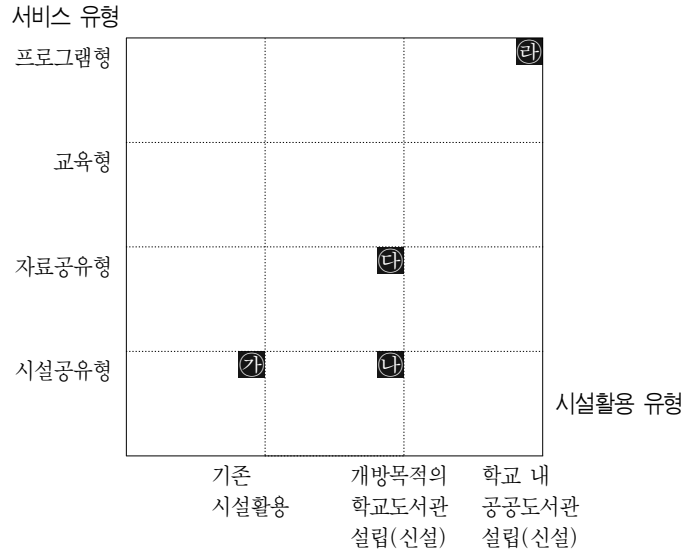
2.3 학교도서관 개방의 유형

학교도서관 개방의 유형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구분과 '시설' 측면에서의 구분으로 나뉜

다. 먼저, 송기호 외(2011)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준으로 시설 공유형, 자료 공유형, 교육형 그리고 프로그램 공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시설 공유형은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열람실을 개방하고 설비를 공유하는 유형이다. 둘째, 자료 공유형은 도서대출증 공유와 온라인 통합 목록을 통해서 관내 협약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교육형은 사서(교사)와 교내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용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과교사와 연계하여 독서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공유형은 이용자의 관심 주제에 따라 강의형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형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김지봉(2007)은 시설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개방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로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학교도서관의 형태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신설학교에 개방 목적의 학교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학교 건축 시에 지역주민들의 인구, 특성, 행태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역에 적합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공동모형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학교용지 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공도서관의 형태를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벌

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은 2010년 기준 688개관이며, 학교도서관은 2009년 기준 초등학교 5,718, 중학교 3,005, 고등학교 2,214개관으로 총 10,937개관이다. 학교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 약 15배 많다. [cited 2012.1.8]. <<http://www.libsta.go.kr/index.do>>.



〈그림 1〉 학교도서관 개방 유형

교초등학교와 서울특별시의 서초초등학교, 경기도립 열린도서관이 대표적인 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도서관 개방의 유형들을 ‘서비스’와 ‘시설활용’을 기준으로 삼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의 형태는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열람실을 개방하고 학교 일정에 맞춰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제한적인 자원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서 역할보다는 자료와 시설을 단순 개방하는 기능에 치우친다. ㉡는 산간벽지, 농어촌, 섬마을 등의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마을도서관’이 그 예다.³⁾ ㉢의 형태가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내 도서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출증 공유와 통합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재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의 변화를 보여준 사례다. ㉣는 학교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이다.

2.4 학교도서관 개방의 장·단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개방의 장점은 학교에서의 관점과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교 측면에서는 도서관 시설과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기회가 된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3) 1991년 농어촌지역 마을도서관 개설운동으로 시작된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2012년 2월 현재 전국 200여 개에 이르는 학교마을도서관을 개설·운영 중에 있다.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모임 장소로서의 기능, 나아가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가능성을 열 어갈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최적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듯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따르는 장점은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편익인 반면, 단점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학교도서관 개방의 단점은 첫째 학교도서관의 장서 특성에 기인한다. 학교도서관의 장서 구성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개방을 고려할 때 장서 구성에 대한 변화는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지역주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 및 서비스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도서관은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한된 장서와 협소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간 확장이 어려운 100~150제곱미터(m²)의 시설에 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자료들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이 한정된 도서구입 예산으로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사서의 문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1인 사서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존의 학교도서관 운영 업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인력이다. 여기에 지역사회 개방 시 추가되는 업무를 감안할 때,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1인 사서 운영 체제는 사서의 개별적 업무 능력의 차이에 따라 또는 선호하는 운영방식에 따라 각기 도서관 운영 전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제반 운영상의 문제다. 공공도서관 기능 확장으로 인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축소 문제가 대두된다. 즉, 학교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어렵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대출, 반납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기 쉽다. 한편, 지역주민의 측면에서는 개·폐관 시간이 학교 일정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짧다. 학교 운영 시간 외의 학교도서관 개방은 학교 전반의 안전·보안 문제를 동반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학교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나 단독건물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3. 학교도서관 개방 사례: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3.1 연혁

2004년 이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 주도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발히 설치·운영되고 있다. 강남구는 2000년 12월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490호)를 제정하고, 학교와 구청의 협력 아래,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한도서관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 예

산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설치된 학교도서관은 2011년 12월말 현재 중학교 1개관, 초등학교 28개관으로 29곳에 이르며, 강남구 거주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9개의 학교도서관, 10개의 동 단위 문고, 13개의 구립도서관 등이 연계하여 강남구 52개의 도서관 중 어느 한 도서관의 이용자라면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자료의 대출 반납뿐만 아니라 상호대차, 이동도서관, e-book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⁴⁾ 지속적인 사업 결과 강남구 내 93%의 초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다. 구청에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빈 교실 무상사용 제공 및 도서관 관리 운영을 조건으로 이를 위탁 운영하였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일반 회계 예산 감소를 이유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을 종료하였다.

3.2 현황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의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기관 홈페이지와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통계 분석,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말 기준, 지역사회 개방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 현황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28개 학교도서관 중 20곳이 서가의 하중을 고려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동선이

복잡하고 접근이 힘든 위치가 아니라 학교 주 출입구에 근접한 1층에 위치하여 비교적 지역 주민 이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석수는 40~49석이 8개교, 28.5%로 제일 많았으며 50석 이상을 갖춘 곳도 7개 학교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용자용 도서검색과 인터넷 이용, 전자도서 열람을 위한 PC수는 3대~5대를 두고 있는 곳이 11개교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는 24학급 840명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열람석 168석, 열람용 PC 18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황이다.⁵⁾

반면, 장서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장서 수는 조사대상 학교도서관 모두 각각 1만1천여 권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장서수가 가장 많은 대진초등학교의 경우 2만여 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었다. 학생 1인당 장서수도 28개교 평균 24.5권으로 『학교도서관기준』의 5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의 12권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한편, 전자책을 제외한 비디오, CD, DVD, 오디오 TAPE 등의 비도서 자료는 28개 학교 평균 567권을 소장 중이었다.

도서관 이용 수업은 대부분 국어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재량시간으로 배정되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의 도서관 이용 수업 횟수는 16회~20회가 11곳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기 초 도서관 이용 수업만 사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 상호대차 서비스는 2007년 8월 시작되어 2011년 11월 중단되었으며, 버스 4대로 운영되었던 이동도서관 서비스도 2010년 12월 중단되었다. e-book 서비스는 강남구전자도서관(ebook.gangnam.go.kr)을 통해 계속 제공되고 있다.
5)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기준』은 재적학생수의 20% 이상의 열람석을 확보할 것과, 재적학생수 500인 이하인 경우 정보이용교육용 PC 10대와 정보검색용 PC 5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 1〉 학교도서관 현황(2011년 12월말 기준)⁶⁾

	학교명	학급 수	개관일	장서수 (권)	비도서 자료	1인당 장서수 (권)	사서수 (명)	야간 개방 여부	도서관 위치 (층)	열람석	이용자 용 PC	도서관 이용 수업
1	개원초등학교	29	2002. 5	33,064	847	48.1	2	-	1	65	2	19
2	개일초등학교	30	2009. 1	15,988	0	18.5	1	-	1	40	6	15
3	개포초등학교	19	2001.12	18,597	1,266	51	1	-	1	36	5	17
4	구룡초등학교	31	2009. 5	11,682	13	13.1	1	-	1	40	10	15
5	논현초등학교	24	2001. 1	13,849	525	19.2	1	-	1	28	10	12
6	대곡초등학교	46	2002. 1	14,669	458	9.4	1	-	2	18	7	21
7	대모초등학교	32	2002. 1	15,148	948	19.6	2	개방	1	52	5	16
8	대왕초등학교	25	2002. 5	16,322	65	28	1	-	1	36	4	10
9	대진초등학교	24	2002. 7	20,008	1,962	41.9	1	개방	1	40	2	20
10	대청초등학교	14	2004. 3	13,915	651	62.2	1	개방	1	24	9	12
11	대치초등학교	45	2003.12	16,470	929	12.7	2	-	2	83	3	22
12	대현초등학교	33	2001.11	14,493	643	16.4	1	-	1	14	4	15
13	도곡초등학교	34	2002. 5	16,501	769	18.4	1	-	2	40	3	17
14	도성초등학교	36	2001.11	18,583	621	13.8	1	-	1	44	10	18
15	봉은초등학교	27	2007. 9	13,377	383	17.5	1	-	2	48	4	27
16	수서초등학교	20	2003.12	12,106	86	31.8	1	-	2	45	3	16
17	신구초등학교	25	2004. 3	13,421	723	20.8	1	-	2	24	4	13
18	암구정초등학교	36	2004. 3	13,392	866	13.1	1	-	1	70	17	18
19	양전초등학교	26	2007. 2	18,382	32	30.2	1	-	1	36	2	13
20	연북초등학교	53	2001.11	15,373	8	8.8	2	-	1	40	2	25
21	연주초등학교	47	2010. 5	13,766	214	10.6	1	-	2	72	4	20
22	역삼초등학교	26	2002. 1	14,242	620	25.1	2	-	2	70	10	22
23	영희초등학교	24	2002. 7	15,341	231	35	1	-	3	43	12	24
24	왕복초등학교	26	2005. 1	18,502	639	26.6	1	-	1	30	12	12
25	일원초등학교	38	2006. 1	11,874	975	10.2	1	-	2	24	12	20
26	청담초등학교	30	2002. 9	17,456	360	21.2	1	-	1	45	4	15
27	포이초등학교	35	2002. 8	13,849	815	45.8	1	개방	1	64	2	17
28	학동초등학교	29	2003.12	12,642	244	16.2	1	-	1	36	2	15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자료를 찾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독서시간으로 활용되고 있

었다. 사서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도서관 사서는 수업 운영을 위한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

6) 『2011 강남구 구성백서』와 도서관리프로그램의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cited 2012.1.11].
 <<http://www.gangnam.go.kr/upload/ebook/whitepaper/2011/default1.html>>:
 <<http://lib1.gangnamg.go.kr/opweb>>.

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 중 재학생 대상 수업이 진행되고, 지역주민 개방 서비스는 방과 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운영시간은 도서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로 지역개방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청은 1인 사서에 야간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도서관을 기준으로 2009년 3천8백9십만 원, 2010년 3천6백4십만 원, 2011년 3천2백9십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별개로 시·도 교육청에서 연간 일정 예산액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별로 학교경상운영비 내에서도 5%를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편성하기도 하였다. 지난 3년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역주민 이용자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4. 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사서 설문과 이용자 설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두 설문조사 모두 2012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다. 먼저, 학교도서관 사서 설문은 강남구 28개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30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20부를 회수하였다. 이용자 설문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곳의 이용자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소속의 독서동아리 모임인 <태화네 책 읽어주는 엄마> 회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율은 사서 설문 66.6%, 이용자 설문

66%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사서 설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1 사서 설문 분석

4.1.1 응답자 일반 사항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서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응답자 중 절반이 12월말까지 근무하였던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7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무기계약직 사서였다. 1급 정사서 2명, 2급 정사서 15명, 준사서 3명이었고, 20명의 응답자 중 9명은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였다.

4.1.2 학교도서관 기능

학교도서관의 중요 기능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독서활동'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제공', '정보제공', '학습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취미, 오락 등에 관한 '레크리에이션'은 응답자가 없었다(<표 2> 참조).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비치하여 독서욕구를 고취하는 독서센터일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지원시설로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자료와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습활동 기능에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함께 하고 있으며, 계약직 신분으로 교사로서의 역할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인 학습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1.3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인식

<표 3>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도서관 개방에

〈표 2〉 학교도서관 기능(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독서활동	16	57.1	1
자료제공	6	21.4	2
정보제공	4	14.2	3
학습활동	2	7.1	4
레크리에이션	-	-	5

〈표 3〉 지역사회 학교도서관 개방

항 목	빈 도	비 율(%)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	2	10
여건이 되면 개방하여야 한다	15	75
개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3	15

대한 인식을 질문하는 문항에 15명(75%)이 '여건이 되면 개방하여야 한다', 2명이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3명이 '개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개방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던 17명의 사서들에게 학교도서관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보완', '학생 독서지도에 도움',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향상'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표 4〉 참조). 반면, '개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3명의 응답자는 '사서업무 과중', '재학생 안전문제', '연체 분실 훼손 도서의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4.1.4 수행 중인 업무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

수 이상의 학교도서관에서 '지역사회 이용자 서비스', '자료의 수서', '도서관 이용교육', '권장도서 선정', '독서지도 및 독서상담', '독서 장려 이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을 통해, 사서교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예산 편성', '정보활용교육'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인 사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업무와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1.5 도서관 운영 시 어려운 점

도서관 운영 시 어려운 점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는 계약직 신분으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과 권리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재교육의 기회가 없어 능력 개발이 어렵다',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 진행 등 학교 행사 참여', '시설관리'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표 5〉

〈표 4〉 지역사회 학교도서관 개방 이유(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지역주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	10	34.4	1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8	27.5	2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보완	6	20.6	3
학생 독서지도에 도움	3	10.3	4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향상	2	6.8	5

〈표 5〉 도서관 운영 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의 한계(제한적인 책임과 권리)	18	46.1	1
재교육의 기회가 없어 능력 개발이 어려움	11	28.2	2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7	17.9	3
프로그램 진행 등 학교 행사 참여	2	5.1	4
시설 관리	1	2.5	5

참조). 사서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임에도 계약직으로 적극적인 도서관 운영권한이 제약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교육의 기회 또한 갖기 어렵다.

4.1.6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에 동의하는 정도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공간 부족’, ‘예산 부족’, ‘인력부족’, ‘학생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 사서들은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에 가장 큰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설문 대상 학교 도서관 대부분이 교실 2칸부터 최대 4칸 규모로 ‘공간부족’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자료·이용자·직원 공간만을

고려한 결과이며, 전자자료 공간·영상 공간·토론 공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1.7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점의 해결방안

학교도서관 개방 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교육청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⁷⁾ 35.4%, ‘전문인력 배치’ 22.9%,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22.9%,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12.5%, ‘시설개선·자료확충’이 6.2%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복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예산부족과 시설 개선 방안으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어 왔지만,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들의 경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시설개선·자료확충’보다는 ‘교육청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꼽았다(〈표 7〉 참조).

7)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표 6〉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에 동의하는 정도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간 부족	2(10%)	4(20%)	9(45%)	4(20%)	1(5%)
예산 부족	-	-	5(25%)	7(35%)	8(40%)
인력 부족	-	4(20%)	5(25%)	7(35%)	4(20%)
자료 부족	-	2(10%)	10(50%)	4(20%)	4(20%)
학생수업에 지장초래	-	4(20%)	8(40%)	7(35%)	1(5%)

〈표 7〉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점의 해결방안(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교육청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17	35.4	1
전문인력 배치	11	22.9	2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11	22.9	2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6	12.5	4
시설개선·자료확충	3	6.2	5

4.2 이용자 설문 분석

4.2.1 응답자 일반 사항

설문 응답자는 남성이 5명(7.5%), 여성이 61명(92.4%)으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20대 3명(4.5%), 30대 19명(28.7%), 40대 42명(63.6%), 50대 2명(3%)으로 30대, 40대의 비율이 높았다. 도서관 이용 목적은 '자녀가 읽을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가 32명(48.4%)으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읽을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가 22명(3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30대, 40대의 이용자들이 주로 자녀가 읽을 책을 대출하기 위해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이 읽을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다는 응답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간자료

등 다양한 장서구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이용 횟수는 '1주일에 1회' 39명(59%)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1주일에 2~3회' 14명(21.2%), '1달에 1회' 12명(18.1%), '거의 매일' 1명(1.5%)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독서량은 '10권 미만' 37명(56%), '10권~20권' 19명(28.7%), '20권~30권' 7명(10.6%), '30권 이상' 3명(4.5%)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주거지 주변에 가까운 학교도서관을 여러 곳 이용하는 경우가 23명(34.8%), 학교도서관과 구립도서관⁸⁾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24명(36.3%),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⁹⁾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13명(19.6%)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과 도서관사무소의 문고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은 6명(9%)으로 나타났다.

8) 강남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13개의 도서관으로 학교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관리된다.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 위탁 운영 중이다.

9) 교육청 소속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강남도서관과 개포도서관.

4.2.2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는 문항에는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 55명(83.3%), '여건이 되면 개방하여야 한다' 11명(16.6%)이 응답하였다. '개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어,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참조).

학교도서관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45.4%가 '지역주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 25%가 '학생 독서지도에 도움'이라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보완',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학교교육에 대한 지

역주민의 관심 향상'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표 9> 참조). 사서 설문 응답과 달리 이용자들은 '학생 독서지도에 도움'을 두 번째 개방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교과과정 중에 도서관 이용수업 실시 및 학교도서관의 독서자료 선택, 독서동기 유발, 독후활동 지도 등 독서교육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4.2.3 학교도서관 개방 시 원하는 것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시 가장 원하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할 것' 47%, '개관시간 연장' 35.2%, '독서프로그램 운영'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의 편리성'은 각각 3.5%로 나타났

<표 8> 지역사회 학교도서관 개방

항 목	빈 도	비 율(%)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	55	83.3
여건이 되면 개방하여야 한다	11	16.6
개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	-

<표 9> 지역사회 학교도서관 개방 이유(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지역주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	40	45.4	1
학생 독서지도에 도움	22	25	2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보완	15	17	3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7	7.9	4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향상	4	4.5	5

<표 10> 학교도서관 개방 시 원하는 것(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접근성이 용이할 것	40	47	1
개관시간 연장	30	35.2	2
독서프로그램 운영	9	10.5	3
문화프로그램 운영	3	3.5	4
이용의 편리성	3	3.5	4

다. 학습 환경과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 시간적 제한이 없도록 개관시간 연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4 이용 중인 도서관의 만족스러운 점

이용 중인 학교도서관에서 만족스러운 점은 '이용이 편리하다' 39.2%, '자녀의 독서교육에 도움이 된다' 31.2%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다양한 정보자원을 접할 수 있음', '사서의 정보제공 능력',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도움' 순으로 응답이 집계되었다(〈표 11〉 참조). 학교도서관 개방에 있어 이용 편의성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앞선 문항에서 이용자들이 학교도서관에 높은 접근성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4.2.5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에 동의하는 정도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예산부족', '인력부족', '자료부족', '공간부족' 순으로 문제가 지적되었다(〈표 12〉 참조). 앞선 동일 질문에(〈표 6〉 참조) 사서들이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던 것과 달리, 이용자들은 '예산부족'과 함께 '자료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었다.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방과 후 시간에 지역사회 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명(56%)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할 때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무시될 수 없다(〈표 12〉 참조).

4.2.6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점의 해결방안

학교도서관 개방 시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은 '교육청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34.3%, '시설개선·자료확충' 23.1%,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18.7%, '전문인력 배치' 13.7%,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10%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1〉 이용 중인 도서관의 만족스러운 점(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이용이 편리하다	49	39.2	1
자녀의 독서교육에 도움	39	31.2	2
다양한 정보자원을 접할 수 있음	18	14.4	3
사서의 정보제공 능력	13	10.4	4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도움	6	4.8	5

〈표 12〉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에 동의하는 정도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간 부족	11(16.6%)	21(31.8%)	26(39.3%)	8(12.1%)	-
예산 부족	3(4.5%)	4(6%)	16(24.2%)	29(43.9%)	14(21.2%)
인력 부족	2(3.0%)	15(22.7%)	21(31.8%)	19(28.7%)	9(13.6%)
자료 부족	5(7.5%)	11(16.6%)	20(30.3%)	24(36.3%)	6(9%)
학생수업에 지장초래	37(56%)	17(25.7%)	12(18.1%)	-	-

〈표 13〉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점의 해결방안(복수응답)

항 목	빈 도	비 율(%)	순 위
교육청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55	34.3	1
시설개선·자료확충	37	23.1	2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30	18.7	3
전문인력 배치	22	13.7	4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16	10	5

이는 사서들이 동일한 질문에 '행정·재정적 지원' 다음으로 '전문인력 배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시설개선·자료확충'에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표 7〉 참조).

4.3 결과 분석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들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개방 시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해 사서들보다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개방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80% 이상이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는 적극적 응답을 보였다. 반면 사서들은 '반드시 개방'보다는 '여건이 되면 개방'에 더 많이 응답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 1인 사서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도서관 개방 시 부과되는 업무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서 설문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사서 응답자는 계약직 신분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에 제약을 받고 있었고, 이는 도서관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되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인 사서와 사서교사의 신분과 처우 개선이 원

활한 학교도서관 운영과 지역사회 개방에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서와 이용자 모두 '지역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과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 보완'을 학교도서관 개방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사서와 이용자들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학생 독서지도 도움'이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서들이 학교도서관이라는 기관의 위상에 대한 고민에 집중한 반면,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편익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사서와 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예산부족', '인력부족', '자료부족'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서는 '인력부족' 문제에 큰 우려를 표한 반면, 이용자는 '인력부족'보다는 '자료부족'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들이 학교도서관 개방 시 문제들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의 강도는 사서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도서관 개방 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는 사서와 이용자 사이에서 동일하게 '교육청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방안으로 사서들은 '전문인력

배치'를, 이용자들은 '시설개선·자료확충'을 필요로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사서와 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을 꼽았다.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은 두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섯째, 이용자들은 학교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함께 이용하거나 학교도서관들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도서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그리고 사서의 정보제공 능력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용자들은 '접근 편리성'과 '개관시간 연장'을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제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 없이 지역사회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도서관은 학사일정에 맞춰 운영된다. 이때 이용범위는 재학생과 학부모로 제한되며,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기준으로, 단위학교 단독으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가 서울지역 전체 학교도서관 1,274개 가운데 513개교, 경기도 전체 학교도서관 2,128개교 가운데 1,423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지역의 경우 2008년 39개교에서 2011년 45개로 6개교가 증가했을 뿐이다(송기호 외 2011, 191).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개방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모자라는 개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비스 확대·제공에 필수적인 예산, 인력, 장서의 부족에 기인한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공공재로써 서비스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개방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헌 연구와 사례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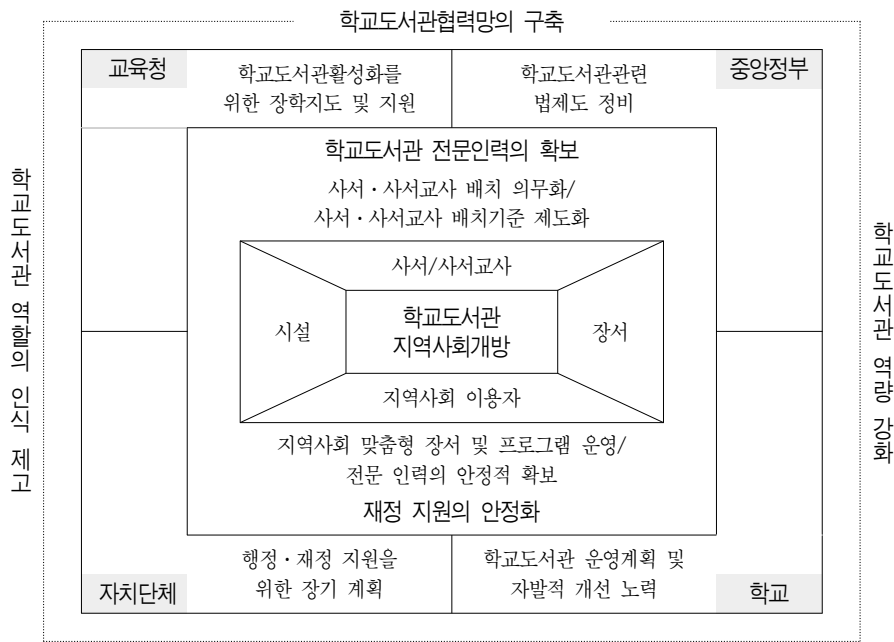
첫째,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다.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해서는 관외대출뿐만 아니라 주말과 방학 중 개방, 방과 후 개방시간 연장, 독서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대부분 비정규직 사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고용불안에 따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도서관의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서교사 배치를 정한 법령은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개방 시 현재 재학생수, 학급수 기준뿐만 아니라 추가로 학교도서관의 규모, 자료수, 봉사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서 배치 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¹⁰⁾

둘째, 안정적 재정 지원의 확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확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도서관 예산은 『학교도서관기준』에서 학교 전체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 총액의 4% 이상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단 1원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건비보다 자료구입비가 우선시 되는 경향도 있다. 예산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데,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성과가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를 벗어나서 꾸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소비나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사회적 수익이 보장된 투자다.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자료 구입비를 확보하고, 운영과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

강남구 초등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과 자료를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르기까지



〈그림 2〉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개선 방안

10)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음,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의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기준』의 초등학교 도서관 교원배치 기준에서는 18학급 미만은 전임 사서교사 또는 겸임 사서교사 1명, 18~35학급일 경우는 전임 사서교사 1명, 36학급 이상이면 전임 사서교사 2명을 제시하였다.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다각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제1항에서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¹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행정 체계 이원화로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근거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사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시민단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서관 운영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단위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역사회 개방을 이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교도서관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추진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용을 위한 장학지도, 도서관 관리인력 확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장기적 계획 아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해

서 개방할 것이 아니라¹²⁾ 학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 개방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협동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의 중심 센터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던 강남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도서관과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단순히 시설의 개방으로 오인하고 무턱대고 실시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확립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능 확대는 교수-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6. 맺는 글

본 연구는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사례 조사를 통해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전문 인력 배치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확보, 이를 위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르는 다각

- 1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2) 2012년 2월 현재, 서울특별시 25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강서구(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 관악구(도서관과), 구로구(교육지원과 도서관팀), 금천구(교육담당관 도서관운영팀), 도봉구(문화관광과 도서관팀), 동작구(교육지원과 도서관육성팀), 마포구(교육지원과 도서관팀), 서대문구(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팀), 성북구(문화체육과 도서관지원팀), 은평구(교육지원과 도서관진흥팀) 10곳에 불과하다.

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타 지역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지역 주민 이용률 저조'는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적인 정보격차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담당 인력의 배치를 통해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 법령의 제정, 지원기관의 역할 정립, 지역사회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학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도서관 운영편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서울.
- 곽철완. 2007. 통합도서관의 발전과 그 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337-352.
- 김병주. 1997.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7: 573-599.
- 김선이, 김윤섭. 2011. 학습기능의 중심축으로서 대학도서관 개방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11-26.
- 김종성. 2010.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발전적 원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7-31.
- 김지봉. 2007.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박윤금. 2009.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개방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개방시설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6(1): 59-68.
- 변우열. 2003.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활용의 극대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3-40.
- 송기호, 이병기, 김도연, 소병문. 2011.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활성화 모델 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병기. 2008.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 범주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139-159.
- 이병기, 송기호. 2011.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115-131.

- 이용남. 2007.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353-372.
- 이진원. 1996.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5): 99-109.
- 정대근, 사공복희. 2010.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269-293.
- 정동열, 김성진. 200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 5-28.
- 최재황, 박철완. 2006. 『학교도서관 현황 조사·분석 및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윤옥, 박철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337-357.
- 한윤옥, 이승원. 2003.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공공 통합형 도서관 운영사례: 강남구립 학교전자도서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2): 59-82.
-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cited 2012.1.8]. <<http://archive.ifla.org/VII/s11/pubs/manifest.htm>>.
- 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 [cited 2012.1.8]. <<http://archive.ifla.org/VII/s11/pubs/sguide02.pdf>>.
- OECD. 2000. Designing school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PEB Exchange no.39-Feb.

[관련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749호, 1999.8.5. 제정
-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3.21, 일부개정.
- 『도서관법』 법률 제10558호, 2011.4.5,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2011.9.30, 일부개정.
- 『평생교육법』 법률 제10915호, 2011.7.25, 일부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법률 제9414호, 2009.2.6, 일부개정.